

## 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전교인 야외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야외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구역강사 훈련 모임  
7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이 식사친교 후에 있습니다.
4. 정기제직회 안내 (7월 8일)  
다음 주 주일예배 후에 정기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5.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8월 18(토)~19(주일) 장소: 포코노 수양관
6. 7월 4일(독립기념일) 수요일예배 안내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독립기념일 관계로 한 주 쉽니다.
7.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입니다.(강병근, 안영남 집사)  
다음 주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입니다.

### 7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일예배	친 교	안 내
7/01			롱아일랜드	한순자
7/08	송 섭	노미숙	베이사이드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 주일설교요약

제목 : 걸사람과 속사람

본문 : 고린도후서 4장 16절 ~ 5장 7절

기도제목 : 1. 걸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풍조를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2.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 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3. 죽음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분야의 매출이 곤두박질을 쳐도, 불황을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외모를 가꾸어주는 산업들 다이어트 성형 노화방지 등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쇼에서 한국의 20대 여성의 절반이 성형술을 하는 나라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걸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걸사람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사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에 관한 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사람과 동시에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사람보다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쳐서 걸사람만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가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자리는 우리의 외모로 뽑혀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로 결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고 지키는 자들이 그 영광에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걸모습들이 후퇴되어 가고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관하여 표현하기를 “생명에 삼킨바 되리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이란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걸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들 성도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죽음은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맞이하는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 더 완전한 생명에게 삼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세상은 언제나 걸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 사람은 약하여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걸 사람을 위해 돈을 쏟아 부어도 결국 후퇴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속 사람은 약하여져가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지난 주 헌금

- \* 지난 주 야외예배 관계로 헌금계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이번 주 헌금계수와 함께 싣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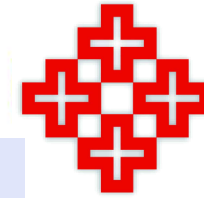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7월 1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이번 주 수요일은 독립기념일 관계로 쉽니다.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2번(시편 96편)	
찬 송 Hymn	233장	
기 도 Prayer	윤우원 장로	
성 경 Scripture	고후 4장 16절 ~ 5장 7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겉사람과 속사람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539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